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0년 3월 일 (제379회)

충북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제 안 자	산업경제위원장
제안연월일	2020년 3월 12일

충북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0년 3월 12일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제안 이유

- 방사광가속기는 원자, 분자 수준의 근원적 구조를 규명할 수 있는 첨단 연구시설로 우리나라는 1994년 경북 포항에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속기는 이미 포화상태이고 설치된 지 25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국제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음
- 또한 2016년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로 포항에 설치되어 운영중인데, 현재 과학기술은 기술혁신 주기가 짧고 미래 기술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규 방사광가속기 건립이 절실함
- 특히 충북에는 반도체·의약품의료기기·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전국 대비 50% 이상 가동중이고 충북에 차세대 방사광가속기가 구축되면 경기이남, 충청권 제조업체의 조기성과 창출이 기대되고, 입지 후보지인 청주시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는 지반이 단단한 화강암 지대로 2021년부터 가속기 건설이 가능한 준비된 최적지임
-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충북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과학기술의 획기적 성장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충북에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 드림.

붙임 : 건의안

- 보낼곳 : 청와대,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충북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사광가속기 일명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입지 후보지를 올 상반기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이를 유치하기 위한 충북 도민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방사광가속기는 원자, 분자 수준의 근원적 구조를 규명할 수 있는 첨단연구시설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경북 포항에 방사광가속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에 설치된 방사광가속기의 사용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2011년 1,500억원을 투입하여 가속기를 업그레이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지 25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국제적 경쟁력 상실은 물론 국내 우수한 연구자들의 약 2%는 해외에 설치된 가속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2016년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로 포항에 설치되어 운영 중임에도, 현재 과학기술의 추세는 기술혁신의 주기가 짧아지고 미래 기술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규 방사광가속기 건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와 함께, 방사광가속기는 바이오헬스, 반도체·전자산업, 에너지산업, 신소재·부품산업 등 3차산업에 활용되는 범용장비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방사광가속기 확충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첨단 연구수행과 기초과학 증진 그리고 산업에 적극 응용하고 있어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차세대 방사광가속기의 충북 유치에 꼭 필요합니다.

특히 충북에는 반도체·의약품의료기기·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전국 대비 50% 이상 가동중이고 충북에 차세대 방사광가속기가 구축되면 경기이남, 충청권 제조업체의 조기성과 창출이 기대되고, 입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청주시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는 지반이 단단한 화강암 지대로 2021년부터 가속기 건설이 가능한 준비된 최적지입니다.

또한 인근에 대덕연구단지과 정부출연연구소가 다수 위치하고 있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여건이 우수하고 KTX고속철도망, 고속도로망, 청주국제공항으로 오창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한 교통의 편리성이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충북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체에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과학기술의 획기적 성장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충

북에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2020년 3월 일
충청북도의의회 의원 일동